

글로벌 전략

5월 수출, 두터워진 주도주의 외연

분석의 기본 가정

- 5월 수출 : 반도체 제외 수출도 16% 증가. 화장품·이차전지도 두 자릿수 성장, AI 인프라 관련 컴퓨터·SSD는 291%, 비철금속 42% 급증
- 반도체·AI로의 자금 집중은 계속될 것이나 주도주의 외연이 두터워지고 있음을 확인

글로벌 전략 김효진 Ph.D.

T.02)2004-9419 / Kim.hyo-jin@shinyoung.com

5월 수출입 동향 : 반도체를 제외해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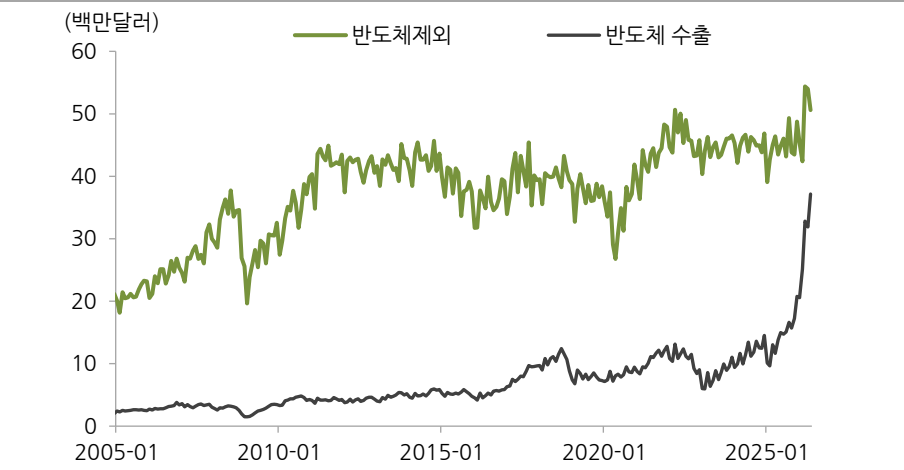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강한 것은 이제 상수에 가깝다. 반도체 수출 호조는 봐도 봐도 반가운 일이나 반도체 한 품목이 성장을 끌어가고 있으니, 이 수치만으로는 수출 경기의 질을 가늠하기 어렵다. 주식시장에 빚대면 '주도주가 좋은 장세'와 '주도주만 좋은 장세'는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여도 본질이 다르다. 전자는 강세가 다수 종목으로 번지며 길게 상승하는 국면이고, 후자는 소수 종목에만 매수세가 쏠린 채 나머지가 소외되는 취약한 국면이다. 필자가 매달 반도체보다 '반도체 제외'를 먼저 들여다보는 이유다.

5월 수출은 전년대비 53.2% 증가, 반도체는 169.4%로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책임졌다. 관건은 그 다음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자동차(-5.9%), 철강(-2.1%) 등 전통 주력 일부는 관세와 중동발 물류 차질로 뒷걸음 쳤지만 화장품(+24.2%)과 이차전지(+31.4%)가 나란히 두 자릿수로 늘었다. 여기에 AI 인프라에 직결된 컴퓨터·SSD(+290.7%)와 비철금속(+41.5%)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종합하면 5월 수출은 반도체라는 주도주가 강하게 끌고 가는 가운데, 그 강세의 외연이 소비재·이차전지·AI 인프라 소재로 두터워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물론 반도체와 여타 품목 간 체급 차이는 여전히 여전하다. 불과 2년 반 전인 2023년 4.4배였던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수출의 차이는 이제 0.4배 남짓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체 수출 증가액의 약 77%가 반도체 한 품목에서 나왔을 만큼, 절대적인 기여도는 반도체가 압도한다.

그러나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반도체 외에는 모두 부진한가'였고, 답은 '아니다'이다. 화장품·이차전지가 두 자릿수로 늘고 AI 인프라 소재가 폭증하는 등 주도주 바깥에서도 동반 증가가 나타났다. AI 관련 산업이 전체 수출을 끌어가는 만큼 이들로의 자금 집중 현상이 이어질 것이나, 주도주'만' 좋은 일방적인 쏠림장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도표 1. 반도체 VS. 반도체 제외 수출



자료: CEI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 20대 주요 수출 품목 현황

품목	증감률	내용
컴퓨터(SSD)	290.70%	AI 데이터센터 저장수요 확대로 기업용 SSD 중심 호조. 4개월 연속 세 자릿수 증가. 역대 최대 실적
반도체	169.40%	美·中 빅테크 수요 견조, 메모리 고정가격 상승 지속(D램·낸드 동반 급등). 월 기준 역대 최대
석유제품	46.60%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급등해 수출액 증가(수출통제 영향으로 물량은 23.8% 감소)
비철금속	41.50%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동·알루미늄 수요·가격 상승. 12개월 연속 증가
이차전지	31.40%	美·中향 ESS·EV용 물량 증가, 광물가격 상승에 단가도 개선되며 플러스 전환
화장품	24.20%	K-뷰티 선호도 확대로 두 자릿수 증가.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
선박	16.70%	LNG선 등 인도 물량·단가 동반 증가. 4개월 연속 증가
무선통신기기	12.60%	프리미엄 완제품(갤럭시 S26) 판매 호조. 7개월 연속 증가
석유화학	11.10%	고유가로 제품가격 상승해 수출액 증가(정기보수·내수전환으로 물량은 감소)
디스플레이	9.40%	OLED 모바일 신제품 출시 대응 등으로 수출 플러스 전환
바이오헬스	5.20%	바이오시밀러 신규 제품군 주요국 안착, CMO 수주 강세. 7개월 연속 증가
농수산물	4.70%	기호식품(커피·주류 등) 부진에도 농산가공품(면·빵)·어류 증가. 3개월 연속 증가
전기기기	△1.7%	전선·차단기는 증가했으나 변압기·발전기 등이 감소하며 소폭 마이너스
철강	△2.1%	건설용 자재(철근)는 늘었으나 열연·후판 등 주력 감소, 저가품 위주로 단가 하락
자동차부품	△2.5%	주요 완성차 업체의 해외 현지조달 기조 지속으로 감소
생활용품	△4.9%	문구·완구는 증가했으나 패션잡화·가구 등 부진
자동차	△5.9%	조업일수 감소·부품 공급 애로·중동발 물류차질·美 관세에 따른 현지생산 확대(친환경차는 증가)
일반기계	△6.3%	美 관세 및 중동전쟁발 물류비 증가로 최대 시장 미국을 중심으로 감소
섬유	△6.6%	소재 재고조정·신규주문 감소, 중국 외 지역 수요 둔화
가전	△21.7%	美 관세·중동전쟁 등 불확실성으로 미국향 대형가전 수요 부진

자료: 산업통상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